

한국말의 구조의미론을 위한 서설

愼 翼 晟
(言語學科 教授)

<目 次>

- | | |
|---------------|---------------------|
| I. 서 론 | 2) 이차구조 |
| 1. 사상과 언어 | 가. 세계의 유형 |
| 2. 일차언어와 메타언어 | 나. 변 형 |
| 3. 공시대와 통시대 | 다. 발 전 |
| 4. 말기술과 반복말 | 라. 파 생 |
| II. 어휘구조 | 2. 통합구조 |
| 1. 계합구조 | 1) Porzig의 본질적 의미관계 |
| 1) 일차구조 | 2) 유 연 |
| 가. 어휘장 | 3) 선 택 |
| 나. 유소구조 | 4) 포 합 |
| 다. 유와 어휘장의 차이 | |

I. 서 론

Pottier, Greimas, Coseriu는 단어의미는 분석될 수 있는 단위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단어의 의미가 의미소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 의미소라는 것은 음운론의 변별적 자질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휘소를 특징지우기 위해서 의미소의 집합을 얻으려고 가정하는 경우에 우리는 변별적 자질을 확증하기 위해서 음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태도는 구조기능적인 관점에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음운론에서 쓰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법을 어휘의미의 연구에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간과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즉 음운론에서 다루어야 될 단위의 수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지만 어휘의미론에서 다루어야 될 단위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루어야 될 단위의 수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즉 그 의미가 구조화될 수 없는 어휘들은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해야 한다. 어떤 것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휘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어휘기능은 범주화기능, 그리고 문법기능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그 두 기능에 선행하는 것이고 또는 문법상의 및 범주화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제거한 후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부터도 어휘

기능은 앞에서 말한 두 기능에 선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어휘들은 어휘의미론의 대상에서부터 제외된다.

즉, 문장에 상응하는 단어들(간투사, 「네」, 「아니오」와 같은 긍정 부정을 표시하는 단어들) 형태소 레벨의 단어들(morphematische Worte)(관사, 전치사, 접속사) 및 범주어(kategorische Worte)(범주소+형태소: 「대명사 또는 지시사, 예를 들면 ‘나’ ‘지금’ ‘여기’ 등)이다. 고유명사도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된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어휘소의 대립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사까지도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는 다른 어휘들과 전혀 다른 범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휘구조의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음과 같은 약간의 구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약간의 구별은 Coseriu가 정한 구별이다. a) 事象과 언어, b) 일차언어와 메타언어, c) 공시태와 통시태, d) 말기술과 반복말.

1. 사상과 언어

어휘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휘기능과 어휘소에 의해서 지시되는 현실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양자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체 또는 현실의 사태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것의 분석에 의해서 기호내용이 구조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사물의 특징과 한계를 언어 속에서 찾는 것에 의해서 언어의 구조화를 현실의 「사물에 관한」 구조화에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용어(Terminologie)이다. 술어는 현실계 — 또는 현실계의 어느 분야 — 를 언어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고 말로써 표시한다. 그러므로 전문용어의 일부는 전연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그 술어가 만약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조화는 언어관용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사물 사실 사태에 대한 과학 기술의 관점과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전문용어의 구조가 모범적인 어휘의 장(Feld der Worte)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장은 언어적 「기호내용」의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규정된 事象, 사물 그 자체의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문용어의 경계획정은 지시된 현실에 관해서 정확하고 「사물에 기초를 둔」 기준, 즉 「현실」의 사물에 속하는 특징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전문술어는 언어의 차원에서 구조화될 수 없다. 전문용어가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됨으로써 구조의미론이 안고 있는 장애는 현저하게 경감될 수 있다. 사실상 無限數에 이르는 단위들이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된다.

언어영역과 사물영역을 구별할 수 있다. 언어영역이라는 것은 단어가 언어기호로서 인식되는 세계이고 사물영역은 사물을 경험과 문화라는 영역의 요인으로서 아는 세계이다. 의

국의 사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대로 차용된 외래어는 각기의 사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물영역과의 관련이 없이는 규정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외래어는 술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래어도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되어야 된다.

2. 일차언어와 메타언어

일차언어(Primäre Sprache)는 비언어적인 현실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이고 메타언어(metasprache)는 언어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이다. 메타언어에 의해서 지시된 사물, 사태 등은 일차언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일차언어의 기호표현의 모든 요소(단어, 단어의 일부, 어떤 표현전체)는 모두가 메타언어의 레벨에서 그 자체가 명사가 될 수 있다. ('푸르다'는 형용사이다) ('마개'의 '개'는 접사이다) 즉 음운, 형태소 더욱 더 큰 단위들이 메타언어적인 단위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메타언어적 단위들은 무한한 명칭목록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명칭목록은 의미구조화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명칭목록을 연구대상에서부터 제외해야 된다.

3. 공시태와 통시태

특히 공시와 통시의 구별은 방법론적으로 중요하다. 이 두 개의 관점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기능작용과 사적발전과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구조의 공시태와 언어의 공시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조는 시간 속에서 지속되지만 다른 구조들은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일체계로서 변하는 것은 언어전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언어변화는 항상 부분적인 체계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언어공시태는 항상 특수한 언어상태와 관련되어야 된다. 언어의 상태는 반드시 공시적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통시적 사실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공시태 안에 있다. 긴 문화적·문학적 전통을 가진 언어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될 수 있는 옛 말의 고이적인 사용이 항상 존재한다. 적절한 기술(記述)은 통시적인 상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선 하나의 공시태를 기반으로 삼고 그외의 공시태, 즉 동일한 언어상태 속에 공존하는 통시적 상위를 그 기반이 된 것과 병행시켜서 기록하는 기술이다.

4. 말기술(Sprachtechnik)과 반복말(Wiederholte Rede)

공시태에 있어서는 말기술과 반복말이 구별되어야 된다. 말기술은 어휘 및 문법의 단위(어휘소, 범주소, 형태소)와 이것들이 글 안에 들어와서 받는 변형 또는 복합의 법칙을 포함한다. 즉 그것은 단어자체와 단어 및 문법에 관한 수단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반복말은

언어전통 속에서 응결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정된 표현, 관용어법, 속담(시, 노래의) 반복구절, 격언, 인용 등은 반복말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반복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언어의 오늘날의 법칙에 의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 반복말은 구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구조의 연구에서부터 제외되어야 된다. 공시론적으로 분석될 수 있고 구조화될 수 있는 것은 말기술의 구조적 현상이다.¹⁾

예 : ‘까마귀소식’이라는 반복어의 구성요소는 ‘까마귀’와 ‘소식’이다. 이들 각기의 뜻을 합쳐도 ‘까마귀소식’의 뜻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반복어는 한국말의 의미구조연구에서부터 제외되어야 된다.

II. 어휘구조

어휘구조는 계합구조와 통합구조이라는 두 개의 주요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계합적 구조는 어휘의 상호간의 직접적인 대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토대가 되는 것은 어휘들 사이의 차이이다.

계합구조는 일차구조와 이차구조로 나누어진다. 일차구조는 다시 어휘장구조와 유소구조로 나누어진다.

1. 계합구조

1) 일차구조

가. 어휘장(Wortfelder)

어휘장은 서로 직접 대립하고 공통의 의미영역을 그들(어휘단위) 사이에서 나누어 가지는 어휘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어휘단위들은 몇 개의 최소의 어휘내용의 차이(「어휘소의 변별특징」, 의미소)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면서 그 장의 가치를 더욱 한정된 가치로 하위구분해 나간다. 예를 들면 ‘차다’, ‘미지근하다’, ‘덥다’, ‘뜨겁다’ 등은 한국말의 어휘장이다. 장의 내부에 있는 어휘단위들 사이의 관계는 모음 또는 자음의 체계에 있어서의 음소들 사이의 관계와 같다. 하나의 장은 그 장의 통일적인 가치에 상당하는 「원어휘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대표가 되어서 흔히 표시된다. 그러나 이것은 장의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장들에는 몇 개의 구조화의 단계가 인정된다. 즉 어떤 단계의 장은 더욱 상위의 단계의 장의 요소으로서 상위의 장 속에 들어가게 된다. 상위의 단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한국말의 ‘앉다’—‘눕다’—‘서다’라는 무리를 출발점으로 한다면 공통가치는 「어떤 평면에 대한 위치」이다. 각기 어휘단

1) Eugenio Coseriu, 1974, Probleme der Strukturellen Semantik, pp. 35-38.

위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별특징은 각기가 다른 위치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ㄴ.....,^ㅡ.....[!]와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 장을 ‘앉히다’—‘눅히다’—‘세우다’라는 장과 대립시킨다면 변별특징 「정지성」/「운동성」이 얻어진다. 이 두 개의 장을 합쳐서 ‘꽃다’와 대립시킨다면 변별특징 「시야에 들어가는 위치」/「시야에 들어가지 않은 위치」가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지성’과 ‘운동성’이라는 변별특징으로서 특징지워지는 두 개의 장들은 더욱 상위의 단계의 장, 즉 「시야에 들어가는 위치」라는 변별특징으로서 특징지워지는 장의 요소가 된다. 이것은 음운론에 있어서의 처리방법과 같다. 예를 들면 우리는 ㅂ—ㄱ—ㅁ 사이 및 ㅌ—ㄷ—ㄴ 사이에서 각기 대립을 정한 후에 각기 무리의 공통가치 「양순음」/「치음」을 대립시킨다. 다시 「양순음」과 「치음」은 더욱 상위단계인 「폐쇄음」의 요소가 된다.

어휘장에 있어서의 대립의 형식유형과 음운체계에 있어서의 대립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음운체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어휘에 있어서도 「단계적」(gradual), 「동치적」(équipollent), 「결여적」(privatif)이라는 세개의 대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말의 따뜻하다/덥다/시원하다/춥다는 「단계적」 유형의 대립이고 붉다, 푸르다, 노랗다 따위의 색채어는 서로 「동치적」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한국말의 검다/까맣다, 푸르다/파랗다, 희다/하얗다는 결여적 대립을 이루고 있다. 제일항과 제이항의 대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鮮明」이라는 특징의 존재이다. 제일항들은 「鮮明」이라는 특징이 없고 제이항들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반의적 대립 (antonymische Opposition)

반의적 대립에 관해서 말한다면 중립적인 항이 실질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항이 된다. 한국말의 작다/크다, 좁다/넓다, 짧다/길다 등의 대립에 있어서 기능면에 있어서의 중립적인 항(소극적인 항)은 [실질적으로 소극적인] 작다, 좁다, 짧다가 아니고 실은 크다, 넓다, 길다이다. 우리는 이상의 반의적 대립에서 중화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짧다/길다의 대립은 있으나 ‘길이 2미터의 자’라는 문맥에 있어서 ‘길다’의 명사화는 사용될 수 있으나 ‘짧다’의 명사화는 사용될 수 없다. 척도에 관한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적극항인 크다, 넓다, 길다에서 만들어지는] 크기, 넓이, 길이는 사용될 수 있으나 그 반대항을 사용될 수 없다.

중화에 관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보겠다. 한국말의 ‘집승’은 (‘날집승’+‘길집승’)과 대립된다. 그러나 ‘집승’은 ‘발집승’+‘날집승’+‘길집승’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휘적 중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머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중화되지 않는다.

b. 차원 (Dimension)

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일정한 대립을 규정하는 관점 또는 기준이다. 즉 어휘소대립의 경우 그 대립의 조준(照準)이 되는 의미특성이 차원이다. 대립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의 관련이 필요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이 차원이다. 예를 들면 온도에 관한 형용사의 장(한국말의 춥다, 시원하다, 포근하다, 덥다)에서는 (「사람의 열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온도의 정도)이라다 의미차원이 있다. 친족명칭의 장에는 「성」 「혈연」 「계통」 「세대방향」 「친등」 등의 다차원의 장이 있다.

단차원의 장은 세계의 하위단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대립의 형식유형은 장의 성립기반이 되어 있다. 각기 유형을 반의적(antonymisch), 단계적(gradual), 계열적(seriell)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c. 반의적 장

반의적 장의 성립기반이 되는 것은 결여적 대립과 유사한 대립, 즉 X/비X형의 대립이다. 이것은 기본적 대립의 단계에서 두 개의 항(項)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많은 이극(二極) 대립이며 대립의 한 항이 다른 항의 부정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말의 낮다—높다, 짧다—길다, 좁다—넓다, 작다—크다 등이다.

d. 단계적 장

단계적 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단계·대립이다. 이 장에는 하나의 원어휘소가 있다. 이 원어휘소(이것은 언어내에서 고유한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의 내부에서 어휘소가 각기의 의미적 자질의 정도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 앞에서 예든 한국말의 온도를 가리키는 형용사의 장은 여기에 속한다.

e. 계열적 장

계열적 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많은 항의 동치적 대립(同值的 對立)이다. 이 장에는 반의적 장에 있는 극성(極性)도 없고 단계적 장에 있는 단계적 상승·하강이라는 성질도 없다. 요일명, 새의 이름, 물고기의 이름 등이 그러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금요일은 다른 모든 요일과 직접 대립한다. 거기에는 정도의 차라는 것은 없다.

어휘에 있어서의 의미의 소극성이 음운론에 있어서의 소극성(「결여성」)과 다른 점.

음운론에 있어서의 소극성은 하나의 기능 한정(「변별특징」)의 부재, 즉 非X는 기능 ○을 표시하는 데 어휘에 있어서는 非X는 「실재하는」 내용, 실질을 갖춘 내용을 나타낸다. 음운론에서 X/非X와 같이 대립을 나타내는 경우에 변별특징만이 문제가 된다. 변별특징에 대응하는 단위전체의 존재는 별개의 특징에 의해서 保證된다.(예를 들면 「유성」, 「비유성」은 음운단위가 될 수 없다.) 「비음+유성」, 「순음+비유성」으로 되어서 비로소 단위가 된다. 음운론에 있어서는 X/비·X이라는 공식은 [U]X/[U](U는 피한정단위)에 상응하고 어휘에 있어서는 UX/U-X에 상응하고 더욱 타당한 공식 U/-U에 상응한다. 따라서 비X(=-U)는 X(=U)의 「진짜 마이너스항」, 「반의항」 또는 「반대항」이

다. 예를 들면 ‘크다’는 단순히 「非작다」(意味價○)이 아니고 ‘작다’의 반대이다. 어휘에 있어서 진짜의 「결여성」(=변별특징의 부재 또 비관여)가 나타나는 것은 반의어의 영역이 아니고 유의어(類義語)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의 영역이다. 한국말에는 ‘히다’/‘하얏다’, ‘푸르다’/‘파랗다’와 같은 대립이 있다. ‘하얏다’는 (희다+선명)이고 ‘파랗다’는 (푸르다+선명)이다. 반의적 대립과 유의적 대립사이에는 본질적 차이는 없다. 차이는 커녕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말에는 ‘희다’/‘하얏다’와 같은 대립이 없다. 일본말은 ‘しろ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해 버린다. 일본말에는 ‘借りる’/‘貸す’이라는 대립이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러한 대립이 하나의 단어 ‘빌다’로 처리되어 버린다. 한국말에는 ‘빌다’ 이외에 ‘빌리다’가 있으나 우리는 그 둘을 별개의 다른 단어라고 보기 어렵다. ‘빌다’/‘꾸다’의 대립이 있는데 그러한 대립은 일본말에는 없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 주어도 되는 경우에만 ‘꾸다’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돈을 꾸다’ ‘쌀을 꾸다’ ‘사람을 꾸다’(시골 농민기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는 가능하나 ‘자전거를 꾸다’ ‘책을 꾸다’는 불가능하다. ‘빌다’는 돌려주어야 될 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어야만 되는 경우에도 쓰이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도 무관한 경우에도 쓰인다. ‘돈을 꾸다’ ‘돈을 빌다’가 둘다 가능하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빌
꾸다
다

f. 복차원의 장

복차원의 장은 쌍차원의 장과 다차원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쌍차원의 장은 음운론에 있어서의 쌍차원의 계합 또는 문법에 있어서의 쌍차원의 범주 예를 들면 인칭의 범주와 비슷하다. 인칭의 범주는 많은 언어에 있어서 「인칭」과 비인칭의 구별이 있다. 쌍차원의 장은 상관적 장과 비상관적 장이라는 두 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진다.

g. 상관적 장

반의적 대립과 유의적 대립이라는 두 개의 대립이 짝맞추어진 것이 상관적 장을 형성한다.

한국말		일본말	
쉽다	어렵다	やさしい	むづかしい
가볍다	무겁다	かるい	おもい

현/새//늙은/젊은
ふるい/あたらしい//おいた/わかい

h. 비상관적 장

비상관적 장은 서로 다른 두개의 구획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두개의 구획은 「반의적」대립 또는 「유의적」대립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구획의 한쪽에는 단계적 대립 다른 쪽에는 동치적 대립이 있는 경우와 둘다가 동치적 대립인 경우가 있다. 한국말에서 「무색」의 구획(「비색채」: 희다—검다)와 「유색」의 구획(「색채」: 붉다, 푸르다, 노랗다 등)와의 사이에는 반의적 대립이 있다. ‘희다’와 ‘검다’와는 서로 반대어인데 ‘붉다’ ‘푸르다’ ‘노랗다’에 있어서는 반대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셋사이에는 등치적 대립이 있다. 영어는 「무색」의 구획에 단계적 대립이 있다. 왜냐하면 영어의 구획은 white-grey-black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i. 다차원의 장

친족명칭의 장에는 다섯개의 장이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장에서는 음운대립 유형과의 유사성을 찾아내기 어렵다.

- a) 「성」의 대립 남성／여성
 아버지／어머니
 아저씨／아주머니 등
- b) 「친족유형」의 대립 자연친족／사회친족
 아버지／장인
 언니, 동생／올케 등
- c) 「계」의 대립 「직계」／방계
 아버지／형, 아우
- d) 방향의 대립 : (직계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아들
 아저씨／조카
- e) 친등의 대립 일친등／이친등
 아버지／할아버지
 형제／종형제

언어들 사이에 있어서의 장의 차이

같은 현실을 언어로써 구조화하는 방법이 언어에 따라서 다르다. 한국말에는 크기에 따른 물줄기의 세계의 구별이 있다. ‘강’ ‘내’ ‘ 시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말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다. 일본말의 かわ(川)라는 하나의 어휘가 한국말의 세계의 어휘에 대응한다.

대립하는 방법이 언어에 따라서 다르다. 한국말의 ‘며느리’는 ‘사위’에만 대립한다. 이 대립에 상응하는 일본말의 대립은 ‘よめ’와 ‘참고’이다. 일본말의 대립은 한국말의 대립과

다르다. 일본말의 ‘よめ’는 ‘むこ’에 대립될 뿐만 아니라 ‘しんら’ (新郎) 또는 ‘はなむこ’에 대립된다. 한국말의 비싸다/싸다라는 대립에 상응하는 일본말의 대립은 たかい/やすいだ. 일본말의 ‘たかい’는 ひくい(한국말, 낮다)에도 대립된다.

나. 유소적 구조

유소적 구조(Klassematische Strukturen)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어휘장의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어휘장의 한계를 넘어 가는 공통의 변별특징이다. 유소적 구조는 본질적으로는 어휘들의 문법적 및 어휘적 결합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유소적 구조는 어휘구조와 관계 없이 하나의 유소(Klassem), 즉 하나의 품사전체(또는 하나의 품사의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유)의 내부에서 기능하고 있는 공통의 변별특징에 의해서 통합된 어휘소의 구조이다. 유소적 구조는 문법적 또는 어휘적 분포에 의해서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소적 구조에 속하는 어휘소는 유사한 문법적 또는 어휘적 결합을 이루고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 있어서 명사라는 품사의 내부에서 「남성의」—「여성의」는 이 둘에 상응하는 어휘소가 그 둘에 고유한 특성의 결합을 요구한다면 두 개의 유(Klasse)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유소적으로 한정적인 어휘소(determinierende Lexeme)와 유소적으로 피한정적인 어휘소(determinierte Lexeme)를 구별할 수 있다. 「유소적으로 한정적」인 것은 특성의 결합을 요구하는 어휘소이고 「유소적으로 피한정적」인 것은 특성의 유와(명사적 또는 비명사적으로) 결합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어휘소 요컨대 [X라고 하는 유를 위한]와 같은 유형의 규정을 가진 어휘소이다. 한국말 ‘장가 가다’에 있어서 한정적인 것은 ‘남성’ 피한정적인 것은 ‘장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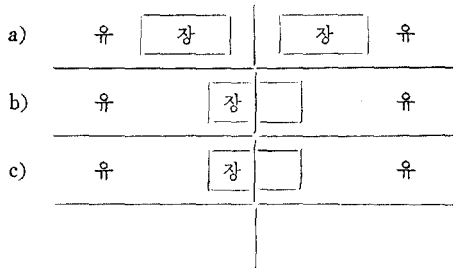
다. 유와 어휘장과의 차이

유는 어휘장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어휘장은 내용의 연속체이지만 이 조건은 유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어휘장은 과연 그 전체가 하나의 유에 속하고 하나의 유에 속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유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유소가 얼마가의 장을 가로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유에 속하는 어휘들이 동일한 어휘장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다’와 ‘팔다’는 유소적으로 작기가 부가적(adlativ)(동작주에 대해서) 또는 이탈적(elativ)이라고 규정되지만 동일한 어휘장에 속한다. 이것에 대해서 ‘묻다’와 ‘답하다’는 작기가 ‘사다’ 또는 ‘팔다’와 동일한 유에 속하지만 동일한 어휘장에는 속하지 않는다. 어휘장은 그 어휘적 결합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유에 있어서는 그러한 결합이 문법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명사는 어느 것이나 항상 하나의 어휘장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말의 ‘범어리’(청각을 잃은 사람, 일종의 저금통)는 유라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부정(不定)이다. 왜냐하면 범어리는 생물을 지시할 수도 있고 무생물을 지시할 수 있다.

유소는 적어도 그것을 표시하는 표현에 관해서 말한다면 반드시 원어휘소와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예를 들면 짐승(동물)은 사람(인간)에 대립하는 원어휘소의 표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존재」에 대립하는 유의 표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어휘소 ‘사람’과 유「인간존재」는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꾼’, ‘미장이’, ‘사냥꾼’ 등과 같은 단어들은 물론 「인간존재」라는 유에 속하지만 「인간」이라는 내용의 하위구분이라고 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유「짐승」에는 짐승에 부쳐진 고유명사도 속하지만 이 고유명사들은 어휘장「짐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어휘소전인 표시가 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대응되는 내용의 유소적인 기능이 생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개별언어는 유를 표시하기 위한 단일단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유소가 내용적으로 원어휘소와 —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시에 어휘소가 될 수도 있는 원어휘소와 — 일치하는 경우만이다.

유와 장과의 상호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유형이 있다.



a)에서는 어휘의 장이 하나의 유속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사내, 계집, 아이 등은 하나의 장을 구성하지만 이 장은 「사람」이라고 하는 유속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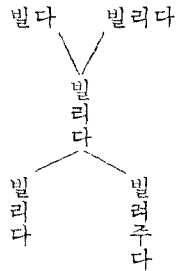
b)에서는 하나의 장이 두 개의 유의 경계선상에 걸터 있다. 예를 들면 ‘사다’와 ‘팔다’는 동일한 장에 속하지만 유소「動作主着點型」(mit Richtung auf das Subjekt)／「動作主起點型」(mit Richtung weg vom Subjekt)의 대립에 의해서 두 개의 유으로 나누어진다.

c)에서 어휘소가 두 개의 유의 경계선상에 있지만 유소의 상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즉 이 어휘소는 어느 쪽의 유 속에서 사용되더라도 형식을 바꾸는 일이 없다. 한국말의 ‘가다’ ‘오다’는 타동／자동이라는 유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타동과 자동이라는 유에 일치하는 유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나타난다.

예 : 나는 학교로 간다. (자동) 나는 이 길을 간다. (타동) 타동사와 자동사와 같은 것은 잘 알려진 유이다. (일련의 하위유도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작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짓기’를 유소이라고 한다면 ‘사다’, ‘받다’, ‘잡다’ 등의 「動作主着點型」동사의 유와 ‘팔다’, ‘주다’, ‘떼다’ 등의 「動作主起點型」동사의 유라는 두 개의 유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현대 한국말사전에 ‘빌리다’(영어의 lend)와 이것에 대립되는 ‘빌다’(영어의 borrow)라는 두 개의 단어가 실려 있다. ‘빌리다’는 ‘빌다’의 사역형이기 때문에 이 둘의 어간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형태론적 관점에서부터 본다면 한 단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소론적 관점에서부터 본다면 ‘빌리다’는 동작주기접형(mit Richtung weg vom Subjekt)이고 ‘빌다’는 동작주착접형(mit Richtung auf das Subjekt)이다. 그래서 의미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은 별개의 어휘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빌다’가 많은 사전에는 실려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빌리다’가 ‘빌다’의 대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빌리다’가 프랑스말의 louer(영어의 borrow의 뜻과 lend의 뜻을 겸하고 있음)처럼 동작주착접형인 동시에 동작주기접형인 때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때의 ‘빌리다’는 C형에 해당한다. 이 어휘소는 유수의 상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빌리다’가 ‘빌다’의 완전한 대신이 되어서 버려 원래의 ‘빌리다’의 자리는 빈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간 것이 ‘빌려주다’이다. 합병(merger)이 분기(split)가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도표화될 수 있다.



위의 ‘빌려주다’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부터 본다면 구(Phrase)이지마는 의미론 관점에서 부터 하나의 어휘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어휘소 사이의 관계는 b)형에서부터 c)형으로 c)형에서부터 다시 b)형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2) 이차구조

가. 세 개의 유형

이차구조는 전통문법에 있어서의 단어형성(Wortbildung)의 영역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차구조는 부가된 문법적 한정을 가지고 이 한정과 더불어 다시 어휘에 환원되는 일차어휘소(Primäre Lexem)를 전제로 한다. 말을 바꾸어 하면 어떤 일차어휘소가 어떤 문법적 한정을 받고서 그 문법한정이 내재된 채로 다시 어휘 속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변형된 단어가 모든 일차어휘소가 받는 문법한정과 같은 명백한 문법한정을 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송아지(어린소)는 ‘소’에 어떤 한정을 주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소’에 특유한 모든 문법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이다.

이차적 구조는 그 전제인 일차 어휘소가 받는 문법한정의 종류에 따라서 변형(Modifizierung), 발전(Entwicklung), 파생(Derivation)이라는 세 개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이차구조의 그러한 분류는 단어를 합성(Komposition)과 파생(Ableitung)으로 분할하는 전통적인 구분과는 다르다. 그러한 분류의 원인은 전통적인 단어형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언어의 내용면이 고려되는 일은 좀처럼 없고 대개 재료의 면만이 고려되든지 또는 재료면과 내용면 사이의 관계만이 연구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파생과 합성 사이는 재료적 기준에 의거해서 구별된다. 합성에 있어서는 두 개의 독립된 단어가 관여하는 데 파생에 있어서는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은 형태소적 요소와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가 되는 단어이다. 이 구별은 재료적 면에서부터 본다면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적 구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파생의 한 부분은 변화와 발전으로서 분류되어야 하는 데 합성과 파생의 일부는 내용적 파생으로서 내용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된다.

a. 변형: 변형에는 문장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변형된 결과 일차어휘소가 가지고 있었던 문장 내에서의 문장기능이 이차적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차어휘소의 양적 변화인 경우가 많다. 의미의 반복도 이 이차적 구조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이차적 구조에 상응하는 것은 접사(接辭)에 의한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단어형성(Wortbildung)이다. 예를 들면 ‘강아지’는 형용사 ‘작다’에 일치하는 내용에 의한 ‘개’의 변화이다. ‘강아지’는 ‘작은 개’으로서의 ‘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차구조인 ‘강아지’는 문장 내에서의 주어 또는 목적어으로서의 ‘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작은 개’으로서의 ‘강아지’의 사용)은 정해진 문장 기능 내에서의 단어들의 사용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 놓다+‘치’=놓치다, ‘새’+까맣다=새까맣다, 붉다—불그스름하다, 길디길다, 길길이, 비+웃다=비웃다, 옛+보다=옛보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 어휘소는 항상 이것들의 근저(根底)인 변화를 받는 어휘소와 같은 품사에 속한다.

b. 발전(Entwicklung): 발전은 문장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발전은 이차적 구조가 일차어휘소가 가지고 있는 문장내에서의 특정기능을 내포하는 바와 같은 문법한정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예: 빨강(빨강+양), 노랑(노랑+양) 앞의 예에서의 ‘빨강’은 형용사 ‘빨강다’의 술어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빨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빨강다+술어기능=빨강, 기쁘다+술어기능=기쁨, 살다+술어기능=삶, 알다+술어기능=앎, 슬프다+술어기능=슬픔=슬프다는 사실, 걷다+술어기능=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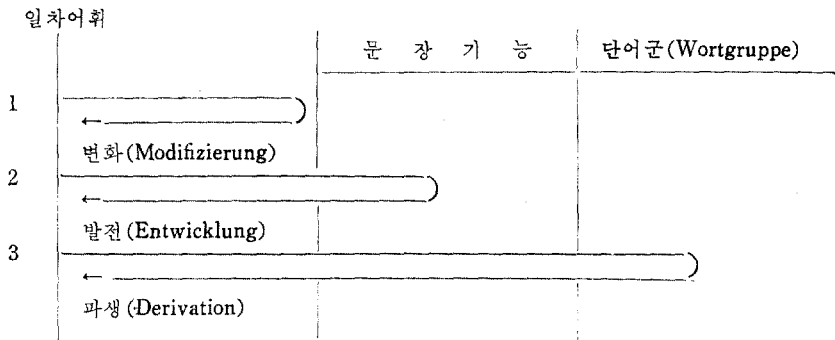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에 의해서 형성된 어휘소는 그 근저가 된 어휘소와 다른 품사에 속한다.

예: 꾸중(꾸짖+응)에 있어서 근저가 된 어휘소 ‘꾸짖’은 동사인데 꾸중은 명사이다.

c. 파생(Derivation): ‘파생’은 앞에서 언급한 ‘변화’ ‘발전’과 마찬가지로 표현적이 아

니고(내용적인) 造語의 양식이다. 파생 역시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規定을 포함하고 있다. 파생도 역시 문장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파생에는 그것들 사이에 문법적 한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개의 단위가 관여하고 있다. 두개의 단위는 어군(Wortgruppe)을 형성한다. 파생에 있어서는 이미 일정한 통합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군은 단일단어(Einzelwort)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 파생의 내부에서 기호표현(signifiant)의 관점에서 본 전통적인 개념을 가진 Ableitung(소위 말하는 파생)과 Wortzusammensetzung(합성)이 구별된다. 그러나 그 둘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둘은 모두가 합성된 표현을 가진 내용의 통합이다. 기호표현의 관점에서 본 파생이라고 불리워지는 현상은 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연 다른 현상들(변화, 발전, 파생)에 대응한다. 예를 들면 독일말에서 동사 lehren에서부터 Lehrer를 파생시킬 수 있다. ×lehrt이라는 문장기능과 der, der lehrt이라는 구조를 포함한다. 파생은 문장기능 외에 상이한 어휘소(Lexem) 사이의 관계(Lehrer=Wesen[사람], das lehrt)를 포함하고 있다. 국어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 ‘꽃—이’는(‘무엇’이 꽃다)이라는 문장기능 외에 (꽃는 기물)이라는 상이한 어휘소들의 통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파생은 통합적인 기초 위에 선 제한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차구조의 세계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 유형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내용구조는 기호표현의 관점에서 분류된 조어(Wortbildung)의 전통적인 범주와 다음과 같이 상응한다.

파생 (Derivation) D (WF) D	변형 (Modifizierung)
	발전 (Entwicklung)
합성 (Komposition) WF + WF	파생 (Ableitung)
	파생 (Derivation)
재료적 기준(materielle Kriterien)	내용적 기준(inhaltliche Kriterien) ²⁾

2) Coseriu, E. 1973, Probleme der Strukturellen Semantik, Tübingen, pp. 86-88.

전통적 조어론도 그 기준에 있어서 모순되는 것이 없지 않다. 즉 전통적 조어론도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재료적 기준 뿐만 아니라 내용적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조어론에서는 “띠/띠다(帶)” “신/신다(着靴)”에 있어서 동사어간 -띠-와-신-이 영형태소(Nullmorphem)를 포함하는 파생(Ableitung)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³⁾ 연구어족에 속하는 제언어들에 있어서는 영형태소는 상당히 흔하다. 영어의 (to) fish/φ, (to) shop/φ 등은 그러한 경우이다. 이상의 예들은 동사를 명사에서부터 식별하는 재료적인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내용이 고려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부터 영형태소의 가정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Togehy와 Pottier는 내용과 형식을 참작하여 동질적 파생(homogene Ableitung)과 이질적 파생(heterogene Ableitung)을 구별했다. 이 구별에 의하면 동질적 파생은 품사의 변화가 없는 파생이다.

개 → 강아지 (명사 → 명사)

파랗다 → 새파랗다 (형용사 → 형용사)

보다 → 돌보다 (동사 → 동사)

이질적 파생은 품사변화를 가져온다.

꾸중(구짓+움), 마중(맞+움), 괴로움(괴롭+움), 그리움(그립+움)

이 구별은 이 조어들의 내용구조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구별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질적인 파생(Ableitung)에 있어서 거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화(Modifizierung)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일→일꾼, 장사→장사꾼은 동질적 파생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의 내용적 구조는 소—송아지와는 전혀 다르다. “일꾼”에 있어서는 피한정소(Determinatum)가 ‘—꾼’인데 “송아지”에 있어서는 피한정소가 “소”이다.

이질적인 파생에는 내용적으로 상이(相異)한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면 기쁨(기쁘—口)에는 통사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듬—이”에 있어서 단어군(Wortgruppe)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Bally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 일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maison · maisonette 사이의 관계는 livre와 libraire 사이의 관계와 다르다.”⁴⁾

maison→maisonnette에 있어서는 피한정소가 첫째의 자리에 나타나는 데 livre→libraire에 있어서도 피한정소는 접사(Suffix) (=, Person, die etwas mit Büchern zu tun hat)이다. 재료적 단계에 있어서의 요소들의 순서는 내용적 요소들의 연속과 같지 않다. 변화(예: maisonnette)에 있어서는 내용(Inhalt)과 형식(Form)이 일치한다. 파생(Ablitung와는 다른 개념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Person, die lehrt(피한정소/한정소)→Lehrer(한정소/피한

3) 沈在箕, 1981, 國語語彙論, 서울, p. 354.

4) Bally, ch, 1965, Linguistique général et Linguistique, française Bern, 250ff.

정소).

전술한 바와 같은 관계는 한국말에도 들어 맞는다.

‘개’→‘강아지’에 있어서 피한정소는 첫째의 자리에 있고 ‘지우-개’ ‘지-개’들과 같은 파생(Derivation)에 있어서는 파한정사는 접사 ‘-개’인데 이것은 두 번째의 자리에 있다.

나. 변형(Modifizierung)

변형이라는 것은 균질적 파생(均質的 派生)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변형은 통사적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어 하면 변화는 어떤 어휘소의 총체에 보충적으로 주어지는 한정을 말하는 것이다. 기근어(Basis)와 변형 사이의 관계는 「어휘소A」-어휘소A+한정」이라고 형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형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변형된 결과 일차어(기근어)가 가지고 있었던(문장내에서의) 특정기능이 이차적 구조에 내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변형에 속하는 것들 중에는 대체로 일차어의 양적 변형인 것이 많다. 이 이차적 구조에 상응하는 것은 지소 사형성 접두사 및 접미사에 의한 형용사형성 등이다. (예 : 개-강아지, 까맣다-새까맣다, 붉다-불그스름하다)

한국말에도 반복을 표시하는 예들이 있다. (예 : 묻다-되묻다, 씹다-되씹다)

다음과 같은 예들은 양적 변형도 아니고 반복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 예들은 성질의 변화(Qualifizierungen)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 나가다-떠나가다, 새우다-지새우다, 누르다-짓누르다, 먹다-쳐먹다)

인구제어에 있어서는 동사에는 접두사가 형용사와 명사에 있어서는 접미사가 변형의 형식적 수단으로서 쓰인다는 구별이 있으나 한국말에 있어서는 그러한 구별이 없다. 인구제어에 있어서는 그러한 구별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나전어에서 형용사에서 접두사가 나타난다. rufus→subrufus, viridis→sufviridis 동일한 접사가 동사에서도 기능한다. 예 : ridere—subridere.

변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 문제라는 것은 한정(Determination)이 한 의미소(Sem)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 아닌지이라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결국 ‘망아지’가 어휘소 ‘말’의 모든 의미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추가하여 ‘작다’이라는 의미소까지도 포함하는 어휘적 단위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닌지이라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첨부된 한정하는 요소는 어휘소 ‘말’의 의미소와 같은 단계(Ebene)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모든 의미소들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노랗다’와 ‘새노랗다’는 직접 대립될 수 없다. ‘새노랗다’는 ‘한정+노랗다’으로 분석되어야 된다. ‘까맣다’와 ‘노랗다’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립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다시 ‘새노랗다’와 ‘새까맣다’ ‘까맣다’ 사이에 직접적인 대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둘다 똑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소사형성(Diminutivbildung)이 문법적 방법의 결과인 듯이 보일런지 모른다. 문법적 방법의 결과이라고 보는 해석은 한정된 목록은 문법에 속하고 무한한 목록은 어휘에 속한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문법과 어휘와의 관계는 목록이 많고 적고와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어휘에서도 한정된 단어들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한정들은 어휘적인 요소들이다. 왜냐하면 한정들의 규정은 어휘의 단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한정들은 일차단어(기근어)처럼 기능하고 동일한 문법적 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에 있어서는 품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 싸+아지→싸가지, 목+아지→모가지, 속+아지→소가지)

다. 발전(Entwicklung)

발전은 항상 품사변화를 포함한다. 기근어(Basis)와 발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어휘소₁(범주₁)→어휘소₁(범주₁)(범주₂) 새로운 단어는 문장내에서 범주₂를 기초로 하고 있는 범주₁로 기능한다.

노랳다	노랑
어휘소 ₁ +형용사	어휘소 ₁ (형용사) 명사

‘노랑’에는 형용사라는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노랑’을 ‘노란 사실’이라는 구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랑’은 이 구문의 명사로서의 발전이다.

우리는 발전을 다음과 같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 발전이라는 것은 이차적 구조가 일차어가 가지고 있었던 문장내에서의 특정기능을 내포하는 바와 같은 문법한정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예 : ‘기쁨’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기쁘다’+술어기능→기쁨 [기쁘다는 것→기쁨] ‘걸다’+술어기능→걸기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에 의해서 형성된 어휘소는 항상 그 근저에 있는 어휘소와는 다른 품사에 속한다.

발전의 내부에서 두 개의 범주가 구별된다. 즉 그것들은 전환(Konversion)과 전용(Transposition)이다. 이 두 개의 술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정의되어야 된다.

전환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발전은 어휘소의 고유한 또는 표현의 필요성에 일치하는 범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소의 일반적 가능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경우에 어휘적인 고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단어는 말(Rede)속에서의 고정화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한국어의 {-기} 계열의 동명사형들은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 : 가—기, 오—기, 쓰—기, 듣—기, 말—하기, 걷—기, ……., 예쁘—기, 곱—기, 아름답—기, …….

위의 것들은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고정된 새로운 단어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명사화는 모든 동사를 명사화된 동사으로서 사용하는 한국말의 일반적 가능성에 일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형식의 명사화는 한국말의 열린 가능성(offene Möglichkeit)이다.

위의 예에서처럼 우리는 {—기} 접미형태소가 동작동사 또는 상태동사에 결합하여 동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대체로 의미의 變性(一般化)이 따르지 않는다. 발전에는 두 종류의 범주가 있다. 하나는 의미의 일반화가 따르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의미의 일반화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기} 접미형태소가 결합된 위의 예들은 고정된 새로운 단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기} 접미형태소가 결합된 모든 동명사가 새로운 단어로 고정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보기(例) : 더하기(加算), 빼기(減算), 뽑기(選拔), 나누기(除算, 配分)……

위의 예들은 쓰이는 경우에 따라서 순수한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뜻이 변해서 고정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① 보기에 통한 광경

②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위의 예들에 있어서 ①의 '보기'는 순수한 동명사이고 ②의 '보기'는 의미의 변성이 일어난 고정화된 새로운 단어이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기로 한다.

① 그것을 두 사람에게 나누기는 어렵다.

② 아이들은 나누기를 배운다.

①의 나누기는 순수한 동명사이고 ②의 나누기는 뜻이 일반화된 고정된 새로운 명사이다.

동명사를 만드는 명사화소는 {—기}만이 아니다. {—□}도 동명사를 만드는 명사화소이다. {—기}와 {—□}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 계열과 {—기}계열을 비교해 볼 때 {—□}계열이 {—기}계열보다 새로운 단어로 고정화된 어휘소가 앞두적으로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수가 많고 적다는 것은 양자 사이를 구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계열에 속하는 고정화된 새로운 명사들은 '보기'에 있어서처럼 순수한 동명사로서 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단어로도 쓰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계열에 속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명사화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의미의 변질(일반화)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반해서 {—□}명사화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의미의 변질이 쉽게 일어난다. {—기}계열에 속하는 것들과 {—□}계열에 속하는 것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양자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기}계열 : 놀기, 믿기, 살기, 알기

{-므}계열 : 놀음, 믿음, 삶, 앎

{-기}계열에 속하는 것들은 의미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에 반해서 {-므}계열에 속하는 것들은 의미의 일반화가 일어났다. ‘삶’, ‘앎’ 등은 철학 등에서 학술용어로 쓰일 정도로 의미가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새로운 단어들로 고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파생 (Derivation)

파생은 흔히 이질적 파생 (heterogene Ableitung)이라고 분류되는 처리방법이다. 「일반적으로 Derivation과 Ableitung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술어가 모두 국어에서 똑같이 파생으로 번역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념을 달리 규정한 두 술어를 똑같이 파생으로 번역한다면 개념파악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의 술어들을 쓰기로 한다.」

Ableitung의 결과는 Ableitung의 토대와 다른 범주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은 Derivation의 정의를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발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Derivation의 개념은 단 경우에는 Ableitung과 분리되는 합성 (Komposition)을 포함한다. 합성과 Ableitung 사이에는 재료적 구별이 있다. 즉 합성의 두 번째의 부분은 독립될 수 있는 단어이다. Ableitung에 있어서는 파생요소는 독립될 수 없는 대체로 파생접미사 또는 ‘영요소’이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 둘은 꼭 같은 처리방법이다. 유소적 파생 (klassematische Ableitungen)과 어휘소적 파생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어군 (語群)이 Ableitung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둘 다에 적용된다. 단어₁+단어₂. 단어₁과 단어₂ 사이에는 규정관계가 있다.

유소적 파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한정소는 유소 (Klassem)이다. 유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련의 장 (Feld)을 통하여 기능할 수 있는 대단히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언어에 실제로 있는 단어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한국말의 가리-개, 깔-개, 꽃-개, 꾸미-개, 날-개, 달-개, 덩-개, 밀-개, 베-개, 싸-개, 쓰-개, 지우-개, 조르-개, 짝-개, 뜯-개, 지-개, 집-개 등에 있어서의 접사 -개, -개는 ‘물건’이라는 대단히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접사이다. 우리는 이 접사를 유소 (Klasse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휘소적 파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한정소는 당해의 언어의 어휘소이다. 한국말의 지게-지게꾼, 일-일꾼 등의 파생 (Ableitung)에 있어서 피한정소 -꾼은 어휘소 ‘직업인’으로서 존재한다. 어휘적 파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파생된 단어들 이 그 단어들의 기근어 (基根語)와 다른 어휘장 (Wortfeld)에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일꾼에 있어서 일꾼은 기근어인 ‘일’과 다른 장에서 기능한다. 이것이 바로 파생 (Ableitung)를 변화 (Modifizierung)에서 부터 구별하게 하는 것이다. 변형은 기근어와 꼭 같은 어휘장에서 기능한다. 예 : ‘벼’→

‘올벼’, ‘밟다’→‘짓밟다’ 그러나 ‘일꾼’에 있어서 ‘일꾼’은 ‘일’의 종류가 아니고 ‘직업인’의 종류이다.

Derivation은 *Entwicklung*에서부터 분명하게 구별된다. 양쪽의 경우에 문장기능이 포함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빨강(빨강+양)은 *Entwicklung*에 속한다. 빨강은 (‘빨강’+술어기능), 즉 ‘빨강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빨강은 명사적인 성질(Nominalität)만을 가지고 있다. ‘걷기’(걷다+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우—개’처럼 ‘기구’이라는 어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삶(살+口)’도 *Entwicklung*의 한 예이다. ‘삶’은 ‘산다는 사실’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삶’에는 어휘소 ‘사실’(事實)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삶’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어휘소는 ‘살’이다.

*Entwicklung*에 있어서는 의미의 일반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Derivation에 있어서는 의미의 집중(Konzentration)이 확인될 수 있다. ‘걷기’의 개념은 일반화된 개념이고 ‘볶이’에 있어서는 의미의 집중화가 확인된다.

Derivation에 있어서는 문법관계에 있는 두 개의 기저요소(基底要素)가 항상 전제가 된다. Derivation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어휘소적’(prolexematisch)한 것이고 다른 것은 ‘어휘소적’인 것이다. 전자는 종래 파생(Ableitung)이라고 불리워져 왔던 것에 상응한다. 후자는 종래 ‘합성’이라고 불리워져 왔던 것에 해당한다. 즉 후자는 전제가 되는 요소가 둘 다 어휘소으로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Derivation에 속하는 단어들의 품사는 합성에 있어서 한정을 받는 어휘소(또는 대어휘소)의 품사와 같다.⁵⁾

‘데릴—사위’, ‘일—소’ 등은 어휘소적 합성에 속한 것이고 ‘떨—이’ ‘미달—이’ 등은 대어휘소적 합성에 속하는 것이다. ‘일—거리’ ‘찬—거리’ ‘땀—장이’ 등에 있어서 ‘—거리’ ‘—장이’ 등은 어휘소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독립될 수 없는 어휘소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휘소적인 합성과 대어휘소적 합성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통합구조

이때까지 다루어진 구조는 모두가 계합적인 구조이다.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은 어휘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통합적인 구조이다. 연대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정어와 피한정어가 존재하고 피한정어는 「그 한정어가 속해 있는 유(類)(또는 장

5) Coseriu, E. Die funktionelle Betrachtung des Wortschatzes (Probleme der Lexikologie und Lexikographie, 1976) (일본말역 : 宮坂農夫·西村牧夫·南館英考 역 [語彙의 機能的 考察(構造的 意味論, 1982, p.285)].

[場]에 적용된다는」 변별특징 또는 「그 한정어 자체에 적용된다는」 변별특징을 내포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연대관계는 유연관계(類緣關係), 선택관계, 포함관계이라는 세 개의 관계로 구별될 수 있다. ‘발적’ 및 ‘파생’은 통합적인 기초 위에 선 계합적인 현상이고 반대로 ‘연대’는 계합적인 조건에 기초를 둔 통합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종류의 어휘적 연대관계를 제일 먼저 지적한 학자는 Walter Porzig이다.

1) Porzig의 본질적 의미관계

Porzig는 예를 들면 bellen(짓다)와 Hund(개), wiehren(말이 울다)와 Pferd(말), blühen(꽃이 피다)와 Pflanze(식물), fällen(베어 넘어뜨리다)와 Baum(나무) 사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은 내용에 기초를 둔 결합성을 「본질적 의미관계」(wesenhafte Bedeutungsbeziehungen)이란 말로써 표현했다. 이것 외에 그는 이것과 같은 관계를 이것이 항상 두 개의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정(想定)에서부터 「기본적 의미장」(elementare Bedeutungsfelder)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의 저서 ‘Das Wunder der Sprache’에서 동일한 현상을 「포괄적 의미장」(einbegreifende Bedeutungsfelder)이라고 부르고 그가 분할적(aufteilend)이라고 부르는 Trier의 어휘장 또는 개념장과 대립시킨다. 그는 다음에는 포괄적 의의장을 더욱 정확하게 통사적 장(syntaktische Felder)이라고 부르고 Trier의 개념장을 「병렬적 장」(parataktische Felder)으로 정정해서 다시 양자를 대립시켰다. 그러므로 Porzig는 자기의 장이 어휘들 사이의 통합적인 포함관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 냈다. 그러나 그는 통합적 포함관계를 정밀하게 연구하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포함관계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가 없었다. 그는 포함관계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는 포함관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예 : Hund는 동사으로서 bellen을, fällen은 목적어로서 Baum을, blond는 명사로서 menschliches Haar를 예기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예들은 같은 유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같은 유에 속하는 것과 결합될 수 있는 유(Klasse)에만 관계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통사적 포함관계를 정밀화하지 못했다. Porzig는 ‘Zahn’과 ‘beissen’과의 관계는 ‘Hammer’와 ‘hämmern’와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양관계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관계이다. ‘Hammer’와 ‘hämmern’와의 관계는 실은 연대와는 전혀 다른 형의 어휘현상 연대와는 정반대의 「발전」 및 「파생」에 속한다.⁶⁾

앞에서 말한 Porzig의 본질적 의미관계 또는 본질적 의미장에 부합하는 연대들 중에서 세 개의 유형이 구별될 수 있다. ‘유연’ (Affinitäten), ‘선택’ (Selektionen), 포함 (Implication)

2) 유 연

유연에 있어서는 한정어휘소에 유소가 피한정소에서 변별적 특징으로서 기능한다. 형식은

6) Coseriu, E., Lexikalische Solidaritäten, (Poetica. 1, 3, 1967)[일본말역 : 宮坂豊夫·西村牧夫·南館英考 역, 語彙의 連帶(構造意味論, 1982, pp. 145-151 참조].

A(유소 a+의미소)－B(X+의미소 a)가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국말의 ‘어편네’와 ‘젊다’ (<인간>이 나이가 많지 않다)와의 사이의 관계이다. 즉 ‘어편네’의 유소 「인간존재」는 「인간존재가 나이가 많지 않은」을 의미하는 ‘젊다’의 변별특징이다. 한국말의 ‘늡다’ ‘젊다’의 의미대립은 다른 언어들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의 두 어휘소들은 당연히 무생물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동물에 적용되는 경우에 ‘늡다’는 적용이 가능하지마는 ‘젊다’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젊다’는 동물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한국말의 ‘장가 가다’는 「남성에 대해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시집 가다’는 「여성에 대해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성」이라는 유소가 ‘장가 가다’에 있어서 변별특징으로서 기능한다.

한국말의 ‘부리’에 있어서 변별적 특징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새」라는 유소이다.

3) 선택

선택에 있어서는 한정어휘소의 원어휘소가 피한정어휘소에서 변별적 특징으로서 기능한다. 배(船)－타다, 기차－타다, 뺨스－타다 등에 있어서 ‘배’ ‘기차’ ‘뺨스’ 등의 원어휘소 ‘탈 것’이 ‘타다’에 있어서 변별적 특징으로서 기능한다.

4) 포함

포함에 있어서는 한정어휘소전체가 피한정어휘소의 내용규정으로서 기능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어휘소 A－B(X+意味素A)이다.

예: ‘밤이 이숙하다’에 있어서 ‘밤’이라는 어휘소 전체가 ‘이숙하다’의 변별적 특징으로서 기능한다.

예: ‘세월이 덧없다’에 있어서는 ‘덧없다’에 있어서는 「시간」은 변별적 특징이다.

예: ‘그는 이으로써 문다’에 있어서 ‘이’라는 것이 ‘물다’의 변별특징이다. 이 한정어휘소 ‘이’는 문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의 문장에 있어서 ‘이으로써’는 유어반복적(tautologisch)이다.

〈Résumé〉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Lexical Semantics of Korean**Ik-Sung Shin**

According to Pottier, Greimas and Coseriu, lexical meaning can be analyzed into sememes. Sememes are the units which correspond to the distinctive features in phonology. The methods by which we analyze the meanings of lexemes are approximately the same as the ones by which we analyze phonemes.

We adopt the approach from the functional-structural point of view in semantics. Many scholars think that the methods mentioned above can be applied to the study of lexical meaning. However, we cannot but be confronted with difficult problems which cannot be overlooked. Namely, the number of units to be studied in lexematics is enormous while the number of units in phonology and grammar is much limited. Thus, one cannot but decrease the number of units to be dealt with. One has to exclude the units that cannot be structuralizable from the object of study. Eugenio Coseriu presents a criterion by which the units ar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terminology, metalanguage, repeated discourse are to be excluded.

Meaning is generally divided into five kinds of meaning: lexical meaning, categorical meaning, instrumental meaning, syntactic meaning and ontological meaning. Our concern here will be restricted to the lexical meaning of Korean lexemes.

The lexical meaning is to be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lexematic structures as following:

(A) Paradigmatic Structure

- a) Primary structure: lexical field,
 lexical class
- b) Secondary structure: modification
 development
 composition

(B) Syntagmatic structures: Affinity

- Selection
- Implication

Among these, lexical field, primary structure is based on Trier-Weisgerber lexical field theory. Lexical class is the concept which was reinterpreted from Coseriu's point of view. Syntagmatic structure is based upon the *wesenhafte Bedeutung-Beziehungen* of Porzig.

In this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the lexical meanings of Korean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lexematic structures.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method which analyzes the lexical meanings of Korean words is to be applied appropriately to such fields as language education, dictionary compilation and translation.